

한국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과 심리적 안녕 -주관적 행복감과 자살충동을 중심으로-

Impact of School Violence on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Students' Happiness and Suicidal Impulse

김경미*, 염유식**, 박연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Kyungmi Kim(ywomen@yonsei.ac.kr)*, Yoosik Youm(yoosik@yonsei.ac.kr)**,
Younmin Park(younmin514@gmail.com)***

요약

본 연구는 학교폭력 경험이 한국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학교폭력 경험을 피해형, 가해형, 피해-가해형, 무경험형으로 구분해, 주관적 행복감과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2013년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조사 자료를 이용, 다중 회귀와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학교폭력은 피해, 가해 등 경험 유형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자살위험을 높였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한 양자형의 자살충동은 무경험형과 비교해 7.1배나 높았다. 한편, 학교폭력 경험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즉, 피해 경험과 피해-가해 중복 경험만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가해경험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관적 행복감 분석에서는 통제변인으로 사용된 스트레스 변인의 영향력이 부각됐다. 특히, 친구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감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경험의 영향을 부정적 안녕감(자살충동) 측면에서만 다루지 않고, 긍정적 안녕감(주관적 행복감)까지 동시에 분석한 최초의 시도로서, 학교폭력 경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 **중심어** : | 학교폭력 | 행복감 | 자살충동 | 심리적 안녕 | 스트레스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school violence on South Korean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The research is designed to analyze how different types of experiences of school violence - victim, perpetrator, victim-perpetrator, and non-involvement - influence students' suicidal impulse and sense of happiness. Empirical data was gained from a national-scale survey conducted by Social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at Yonsei University in 2013, and was analyzed using binary logistic and multiple regression methods. Findings suggest that any types of experiences of school violence had significant effect on suicidal impulse. In particular, the likelihood of victim-perpetrator to experience suicidal impulse was 7.1 times stronger than non-involvement. However, the effect of experiences of school violence on students' sense of happiness was insignificant. While the impact of school violence on sense of happiness among victims and victim-perpetrators was significant, its impact among perpetrators proved insignificant. Rather, stress factor - in particular, stress from peers - had more significant impact on the level of students' happiness.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he multiple effect of school violence by examining both negative and positive dimensions of psychological well-being.

■ **keyword** : | School Violence | Happiness | Suicidal Impulse | Psychological Well-being | Stress |

* 본 연구는 한국방정환재단의 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3년 08월 26일

수정일자 : 2013년 09월 09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9월 16일

교신저자 : 김경미, e-mail : ywomen@yonsei.ac.kr

I. 서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행복이나 안녕감이 주요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한국 청소년은 과연 얼마나 행복할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감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1].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나 학교 환경, 위계적 가족문화 등 한국 문화의 특수성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역시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한국에서는 학교폭력을 사회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2]. 전국 초·중·고 학생 5명 중 1명이 지난 1년간 학교폭력을 경험했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무려 31.4%가 자살생각을 했다는 한 조사결과도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한다[3]. 실제로, 2008년~2011년 학교폭력 문제로 자살한 중·고생은 보도된 경우만 9명에 이른다[4]. 다시 말해, 한국에서는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행복뿐 아니라 존재 자체까지도 위협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은 한국 사회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전세계적으로 학생들의 인성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5-7], 이에 따라 학교폭력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70년대 스칸디나비아에서 시작된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는 점차 미국, 캐나다 등지로 확산됐으며, 최근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8].

한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가 실태나 원인 파악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흥미롭게도, 학교폭력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사실, 학교폭력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며[9-11]. 한국에서 이를 다룬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위험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12].

본 연구는 학교폭력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학교폭력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학교폭력 경험을 피해와 가해를 기준으로 구분해, 이들 경험이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과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선행연구가 학교폭력 경험이 자살생각과 같은 부정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만을 다뤘다면, 본 연구는 주관적 행복감, 즉 긍정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까지 동시에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 연구가 조사대상이나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학교폭력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이해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학교폭력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학교폭력 경험을 유형화해 이들 경험이 주관적 행복감과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II. 기존연구 검토

1. 학교폭력 경험집단의 유형화

한국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연구는 상당수에 이른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나 원인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며, 최근 학교폭력 경험 집단을 유형화해, 집단별 특성을 분석하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8][13][14].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전국 규모로 실시된 한 조사에서는 2011년 학교폭력 피해율이 18.3%였으며[3], 서울·경기지역 조사에서는 이 수치가 48.0%로 나타났다[15]. 이처럼 학교폭력 경험 수치는 조사대상 및 범위, 조사지역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학교폭력이 광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15]. 그러나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을 중복적으로 겪는 청소년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8], 따라서 학교폭력 연구도 다양한 경험유형을 포괄하는 형태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폭력 경험집단을 유형화하는 연구도 나타난다. 김준호 등[13]은 학교폭력 경험 유형을 제1유형(무경험 집단), 제2유형(가해집단), 제3유형(피해집단), 제4유형(피해·가해 중복집단)으로 구분해 이들 유형에 속하게 되는 조건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폭력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강하고, 주변에 비행친구가 많으며, 학교 부적응이 강한 학생들이 제4유형, 즉 학교폭력 중복집단에 속한 한편, 이들 요인에 약한 학생들은 제1유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신혜섭 연구[8]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한 집단이 다른 유형보다 일탈적 자아개념과 공격성이 높았으며, 학교 부적응 수준도 높았다. 학교폭력 가해경험만 있는 집단은 피해·가해 중복 집단과 거의 유사한 특징을 보였으며, 학교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이 가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과 가해 집단의 중간에 위치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처럼 학교폭력 경험집단은 유형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였다.

한편, 한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에 이르지만, 학교폭력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물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12][15].

지금까지 학교폭력 경험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다뤘으며, 최근 들어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9][17]. 하지만, 이들 연구는 대체로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분리해 논의한 한계가 있으며[5], 피해와 가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한 집단을 다룬 경우는 매우 드물다[18]. 학교폭력 경험집단별로 그 특성이 다르듯,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역시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의 영향을 분석할 때 경험집단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실,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을 유형화하고, 이들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학교폭력의 영향이 경험유형에 따라 어떻게 상이한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7]. 예를 들어,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심리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해경험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한 집단은 다른 집단과 비교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학교폭력의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경험의 영향을 집단 유형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설정한다.

<연구과제 1> 학교폭력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 유형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2. 학교폭력 경험과 심리적 안녕감

학교폭력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우울감, 자살생각¹⁾과 같은 부정적인 안녕감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서구 학계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대체로 우울감이나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우울감이나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부정적인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학교폭력 피해집단의 자살생각이 대체로 학교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11][20][21], 또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자살생각뿐 아니라 자살 시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22][23]. 다시 말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증가할수록 우울감과 자살 위험 역시 높게 나타났다[10].

이러한 양상은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경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즉, 학교폭력 가해집단의 자살생각은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집단보다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

1. '자살'이란 용어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 실행해 사망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살 사망자는 연구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에서는 자살생각 등을 다룬다[12][19].

경험 뿐 아니라 가해경험도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24][25], 또한, 이들 경험은 자살시도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26]. 요컨대, 서구 학계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경험뿐 아니라 가해경험도 우울감, 자살생각이나 시도 등 부정적인 안녕감을 증가시켰다[11][25][28].

또한,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한 집단에서 우울감, 자살생각과 같은 부정적인 안녕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18]. 다시 말해, 서구에서 발표된 선행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에 대한 중복적인 경험이 부정적인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학교폭력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극히 드물지만, 발견된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경험은 우울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학교폭력 피해집단의 우울감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또한, 한국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도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우울감이나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12][15].

이처럼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학교폭력 경험은 부정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경험은 주관적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안녕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학교폭력 경험이 긍정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에 관한 경험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학교폭력 경험이 긍정적 안녕감과 부정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양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효과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할 때 학교폭력의 영향을 보다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성별, 학교성적, 부모의 경제적 지위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통제변인으로 사용됐는데[18][29],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변인 역시 통제변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청소년은 높은 수준의 성적 및 입시 관련 스트레스를 겪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변인에 대한 고려는 중요하다. 사실, 선행연구

에서 스트레스 변인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0][31].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등 관련 변인을 통제한 채, 학교폭력 경험이 긍정적 안녕감과 부정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과제 2> 한국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은 스트레스 등 관련 변인을 통제할 때 긍정적 안녕감과 부정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13년 3월~4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제주도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이 조사에서 표본은 교급, 지역 규모, 성별 등을 고려해 학생 수에 따라 비례할당 방식으로 추출됐다. 즉, 기존 학교폭력 연구에서는 보기 힘든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했다. 이 자료에는 지역 규모, 성별 등을 기준으로 가중치가 부여돼 있으며,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고생 5,297명 자료를 분석했다.

2. 변수구성 및 측정

2.1 종속변인

본 연구는 종속변인으로 주관적 행복감과 자살충동을 사용했다. 주관적 행복감은 유니세프(UNICEF) 행복지수2에서 사용된 6개 항목-“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삶에 만족한다”,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을 이용해 측정했다. 이들 항목은 5점 척도(1:

2. 유니세프 행복지수는 6개 영역, 즉 물질적 영역,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건강관련 행위, 주관적 행복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는 주관적 행복 영역을 측정하는 6개 문항을 사용했다[32].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구성돼 있으며, 외로움 측정 문항을 역산함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도록 했다. 항목간 신뢰계수는 .804이다.

자살충동 변인은 “자살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 적이 있나요?”라는 문항을 이용했으며, 이에 대한 응답을 가변수 처리했다.

2.2 독립변인

학교폭력 경험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했다. 학교폭력 경험을 유형화하기 위해 “최근 1년간 위와 같은 학교폭력을 하나라도 당한 적이 있나요” 문항과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가한 적이 있나요” 문항을 이용했다. 위 문항에서 학교폭력의 예로 신체폭행, 금품갈취, 언어폭력,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이 제시됐다.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종합해, 학교폭력 피해 경험만 있는 경우는 ‘피해형’, 가해경험만 있는 경우 ‘가해형’,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경험이 모두 있는 경우 ‘양자형’,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경험이 모두 없는 경우는 ‘무경험형’으로 유형화했다.

2.3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스트레스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했다. 먼저,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요인분석을 통해 4개 범주로 구분했다. 즉, 학습 스트레스, 부모관계 스트레스, 친구관계 스트레스, 외모·용돈 스트레스이다. 먼저, 학습 스트레스는 5개 항목-“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학 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을 이용해 측정했다. 이들 항목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구성돼 있으며, 항목간 신뢰계수는 .820이다.

부모관계 스트레스는 3개 항목-“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을 이용해 측정했다. 이들 항목간

신뢰계수는 .880이다.

친구관계 스트레스는 3개 항목-“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을 이용해 측정했다. 이들 항목간 신뢰계수는 .846이다.

외모·용돈 스트레스는 6개 항목-“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멋있거나 이쁜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을 이용해 측정했다. 항목간 신뢰계수는 .811이다.

또한, 성별, 교급, 부모님 학력, 계층, 학교성적, 거주 지역, 가족구조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했다. 성별은 여성(=1)을 기준으로 가변수 처리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으로 각각 범주화했다. 계층 변인은 “사회계층을 아래와 같이 나누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문항을 이용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원래 6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서는 4단계-하층, 중층의 하, 중층의 상, 상층-로 재구성해 사용했다. 학교성적 변인은 2012년 2학기 기말 성적을 묻는 문항을 이용해 3개 범주(상·중·하)로 구분했다. 거주지역 변인은 대도시(=1)를 기준으로 가변수 처리했으며, 가족구조 변인은 재혼가정 여부에 따라 이분범주화 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학교폭력 경험이 자살충동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과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스트레스 변인을 각각 통제해 학교폭력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3개의 모형을 구성했다. 즉, 모형 1에서는 학교폭력 경험 변인만을 포함시켜 자살충동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모형 2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했을 때 학교폭력 경험 변인이 자살충동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 모형 3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이어 스트레스

변인을 통제했을 때 학교폭력 경험 변인의 효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보여준다.

IV. 분석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비율이 54%로, 여학생(46%)보다 높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50.1%, 49.9%로 고르게 분포돼 있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49% 수준이었다.

아버지 학력의 경우 대졸이 가장 높은 비율(48.7%)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고졸(38%), 대학원 이상(8.6%), 중졸 이하(4.7%) 순이었다. 한편, 어머니 학력은 아버지와 달리, 고졸이 49.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대졸(41.0%), 대학원 이상(5.5%), 중졸 이하(4.1%)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에 대한 인식에서는 중층의 상에 속한다는 비율이 44.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중층의 하(31.9%), 상층(13.0%), 하층(1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	변수	구분	빈도(명)	%
성별	여성	2437	46.0	학교폭력 유형	피해형	271	5.2
	남성	2860	54.0		가해형	138	2.6
교급	중학생	2656	50.1		양자형	113	2.2
	고등학생	2641	49.9		무경험형	4694	90.0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232	4.7		학업	5277	3.08* (.92)
	고등 졸업	1872	38.0		스트레스 유형	부모관계	5290
	대학 졸업	2403	48.7	친구관계		5290	1.82* (.85)
	대학원 이상	423	8.6	외모·용돈		5280	2.26* (.86)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205	4.1	계층	상	686	13.0
	고등 졸업	2475	49.4		중의 상	2355	44.7
	대학 졸업	2058	41.0		중의 하	1678	31.9
	대학원 이상	276	5.5	하	545	10.4	
학교 성적	상	919	20.0	자살충동	해당	1331	25.4
	중	2773	60.3		해당 안됨	3900	74.6
대도시 거주	해당	2596	49.0	주관적 행복 (표준편차)	평균	5284	3.72* (.75)
	하	910	19.8		가족구조	재혼	132

* 평균(표준편차)

학교성적은 중간층이 60.3%로 가장 많았고, 상위와 하위층은 거의 동일하게 분포돼 있었다.

한편, 스트레스 유형 변인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학업 스트레스가 평균 3.0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부모관계 스트레스(2.63), 외모·용돈 스트레스(2.26), 친구관계 스트레스(1.82)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무경험형이 9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피해형으로 5.2%, 가해형과 양자형은 각각 2.6%, 2.2%였다. 지난 1년간 자살충동을 경험한 비율은 25.4%였으며,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 3.72 수준이었다.

2. 학교폭력 경험과 자살충동

학교폭력 경험 변인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모형 1은 학교폭력 경험 유형 변인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모형 2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했을 때 학교폭력 경험 변인의 영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여준다. 모형 3에서는 스트레스 변인을 추가 통제했을 때 학교폭력 경험 유형 변인의 효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학교폭력 경험 변인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학교폭력 경험 변인은 모두 자살충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나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과 비교했을 때 학교폭력 피해형의 자살충동은 약 3.35배 높았으며, 가해형은 약 2.39배,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모두 있는 양자형은 무려 9.85배 높았다(모형1 참고). 다시 말해, 학교폭력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의 자살충동이 무경험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양자형의 효과가 피해형이나 가해형보다 약 3~4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폭력 경험 변인의 효과는 모형 2와 모형 3에서 각각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스트레스 변인을 통제했을 때에도 유의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성별, 교급, 계층, 학교

성적 변인이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모형2 참고). 여학생의 자살충동이 남학생보다 높은 한편, 중학생의 자살충동은 고등학생보다 낮았으며, 또한 계층 인식과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자살충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 스트레스 변인을 통제했을 때 성별과 계층 변인의 효과는 계속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교급과 학교성적 변인은 유의하지 않게 변했다.

또한, 모든 스트레스 변인은 자살충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학업 스트레스, 부모관계 스트레스, 친구관계 스트레스, 외모·용돈 스트레스가 클수록 자살충동 역시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변인이 자살충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자살충동

	모형1		모형2		모형3	
	계수(B)	Exp(B)	계수(B)	Exp(B)	계수(B)	Exp(B)
피해형	1.209***	3.350	1.305***	3.687	1.031***	2.804
가해형	.869***	2.385	1.145***	3.144	1.057***	2.876
양자형	2.287***	9.846	2.254***	9.523	1.953***	7.053
성별(여학생=1)			.781***	2.183	.752***	2.122
교급(중학생=1)			-.163*	.850	-.090	.914
아버지 학력			-.035	.966	-.043	.958
어머니 학력			.099	1.104	.084	1.087
계층			-.226***	.798	-.130*	.878
학교성적			-.191**	.826	-.056	.945
가족구조(재혼=1)			.208	1.231	.091	1.096
대도시 거주			-.066	.936	-.066	.936
학업 스트레스					.293***	1.340
부모관계 스트레스					.417***	1.517
친구관계 스트레스					.106*	1.111
외모·용돈 스트레스					.282***	1.325
상수항	-1.218***	.296	-.704**	.495	-4.129***	.016
-2Log 우도	4464.895		4306.242		3945.548	
모델 Chi-square(χ^2)	178.177***		336.830***		697.524***	
Nagelkerke R ²	.063		.117		.232	
사례수(명)	5164명		4082명		4062명	

주: * p<.05, ** p<.01, *** p<.001
학교폭력 유형 기준: 무경험형

표 3.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주관적 행복감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B	β		B	β	
피해형	-.310	-.091	***	-.332	-.097	***	-.128	-.038	**
가해형	-.023	-.005		-.127	-.026		-.086	-.018	
양자형	-.524	-.102	***	-.501	-.098	***	-.227	-.044	**
성별(여학생=1)				-.114	-.075	***	-.083	-.055	***
교급(중학생=1)				.177	.117	***	.145	.096	***
아버지 학력				-.010	-.009		-.011	-.010	
어머니 학력				.046	.040	*	.055	.048	**
계층				.183	.197	***	.129	.139	***
학교성적				.136	.113	***	.089	.074	***
가족구조(재혼=1)				-.089	-.019		-.049	-.010	
대도시 거주				.042	.028		.039	.025	
학업 스트레스							-.060	-.073	***
부모관계 스트레스							-.071	-.098	***
친구관계 스트레스							-.219	-.243	***
외모·용돈 스트레스							-.097	-.110	***
상수	3.780		***	2.881		***	4.063		***
수정된 R ²		.017			.114			.258	
F값		25.104***			48.888***			95.917***	
사례 수		5203			4121			4101	

주: * p<.05, ** p<.01, *** p<.001
학교폭력 유형 기준: 무경험형

3. 학교폭력 경험과 주관적 행복감

학교폭력 경험 변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모형 1의 경우 학교폭력 경험 변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모형 2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포함시켜 학교폭력 경험 변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모형 3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이어 스트레스 변인을 통제했을 때 학교폭력 경험 변인의 효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볼 수 있다.

먼저, 모형 1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형과 양자형의 주관적 행복감이 학교폭력 무경험형과 비교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효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스트레스 변인을 통제했을 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표준화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할 때 양자형의 효과가 피해형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다(모형 2와 모형 3 참조). 한편, 가해형의 주관적 행복감은 무경험형과 비교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성별, 교급, 어머니 학력, 계층, 학교성적이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중학생이 느끼는 행복감이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또한, 어머니 학력, 계층인식, 학교성적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 역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모형 2 참조). 이들 변인의 효과는 스트레스 변인을 통제했을 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한편, 아버지 학력, 가족구조, 대도시 거주 변인은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스트레스 유형은 주관적 행복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학업 스트레스, 부모님 관계 스트레스, 친구관계 스트레스, 외모·용돈 스트레스가 클수록 주관적 행복감은 유의하게 낮았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할 때 친구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변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으며(β= -.243), 그 다음은 외모·용돈 스트레스(β=-.110), 부모관계 스트레스(β=-.098), 학업 스트레스(β=-.073) 순이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학교폭력 경험 변인을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 무경험형으로 구분해, 자살충동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학교폭력 경험은 자살충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의 자살충동은 무경험형과 비교해 약 2.8배 높았으며,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의 자살충동은 2.9배 높았다. 즉, 학교폭력은 피해나 가해 등 경험 유형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자살위험을 높였다. 이 결과는 사회 및 정책적 관심 대상을 학교폭력 피해 집단에서 가해 집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한 집단은 사회적 관심이 시급한 ‘위기 집단’이었다.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경험이 모두 있는 양자형의 자살충동은 무경험형과 비교해 7.1배나 높았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한 집단의 자살위험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부합되지만[18], 본 연구에서는 그 위험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한편, 학교폭력 경험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자살충동에는 가해, 피해, 가해-피해 등 모든 학교폭력 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피해 경험과 피해-가해 중복 경험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긍정적 안녕감인 주관적 행복감에는 학교폭력 경험 변인보다는 스트레스 변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할 때 스트레스 변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는 학교폭력 경험 변인보다 약 2~6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도 자살충동 및 주관적 행복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스트레스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부모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한편, 주관적 행복감에는 친구관계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학교성적이 아닌 학업 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친 점도 흥미로운 결과였다. 학교성적 자체보다는 한국 청소년이 느끼는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자살위험

을 높였다.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에는 학교성적과 학업 스트레스 변인 모두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학교성적 그 자체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살위험을 높이지 않은 한편, 학업 관련 스트레스는 주관적 행복감과 자살위험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학력 중심주의 사회와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단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외모 및 용돈 스트레스가 학업 스트레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 점도 주목을 끄는 결과였다. 외모 및 용돈 스트레스는 자살충동과 주관적 행복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크기도 학업 스트레스 변인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지닌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학교폭력 경험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층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즉, 학교폭력 경험을 피해, 가해, 양자, 무경험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학교폭력 경험이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 안녕감과 부정적 안녕감, 두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학교폭력의 영향이 경험 유형이나 안녕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측면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학교폭력 경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그런데 본 연구는 학교폭력 경험을 피해, 가해, 피해-가해 양자형으로 구분해 살펴봄으로써 학교폭력 피해 집단뿐 아니라 가해 집단도 학문 및 정책적 관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외에 스트레스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포함시킨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경험의 영향은 통제변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인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18]. 국내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변인이 심리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듯[30][31], 학교폭력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변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기존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사용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학교폭력 연구는 조사 대상이나 지역에 따라 그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가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폭력 경험의 영향이 젠더별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이 측면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 경험을 유형화했을 때 해당 사례 수가 크지 않아 여학생과 남학생으로 구분해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영향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젠더 차이’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33]가 앞으로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 경험 변인을 피해와 가해를 기준으로 구분했을 뿐, 경험 빈도와 경험 내용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도 있다. 학교폭력 경험 빈도가 빈번할수록, 학교폭력의 내용이 폭력적이거나 심각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측면을 자료의 제약 문제로 다루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 고 문 헌

[1]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구축과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2009-2012.

[2] 윤명숙, 조혜정, “청소년의 폭력경험 유형이 우울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 학교폭력, 중폭폭력 피해경험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9권, pp.295-329, 2008.

[3]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2011.

[4] 오마이뉴스, “초중고생 자살 현 정부 들어 1.3배 증가, 왜?” 2012(10월 2일).

[5] R. Benbenishty and R. A. Astor, *School Violence in Context: Cultural, Neighborhood, Family, School, and Gend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6] J. K. Chen and R. A. Astor, “School Violence in Taiwan: Examining How Western Risk Factors Predict School Violence in an Asian Culture,” *J.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25, No.8, pp.1388-1410, 2010.

[7] J. K. Chen and H. S. Wei, “The Impact of School Violence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mong Taiwanes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100, pp.479-498, 2011.

[8] 김선아,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애착이 폭력가해와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가해-피해 중첩집단과 일반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호, pp.5-36, 2005.

[9] A. Baldry, “‘What about Bullying?’ An Experimental Field Study to Understand Students’ Attitudes towards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Italian Middle School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74, pp.583-598, 2004.

[10] D. J. Flannery, K. L. Wester, and M. I. Singer, “Impact of Exposure to Violence in School o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Behavior,” *J. of Community Psychology*, Vol.32, pp.559-573, 2004.

[11] A. B. Klomek, F. Marrocco, M. Kleinman, I. S. Schonfeld, and M. S. Gould, “Peer Victimization, Depression, and Suicidality in Adolescents,” *Suicide Life-Threatening Behavior*, Vol.38, pp.166-180, 2008.

[12] 박재연, “학교폭력이 청소년 우울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1권, 제1호, pp.345-375, 2010.

[13] 김준호, 박정선, 김은경,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14] 신혜섭,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피해 중첩경험

- 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4호, pp.123-149, 2005.
- [15] 김재엽, 이근영,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5호, pp.121-149, 2010.
- [16] 김준호, 황지태, “학교폭력 피해자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pp.81-100, 2002.
- [17] A. M. O' Moore and C. Kirkham, “Self-Esteem and Its Relationship to Bullying Behaviour,” *Aggressive Behavior*, Vol.27, pp.269-283, 2001.
- [18] Y. S. Kim, B. Leventhal, Y. J. Koh, and W. T. Boyce, “Bullying Increased Suicide Risk: Prospective Study of Korean Adolescent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Vol.13, No.1, pp.15-30, 2009.
- [19] W. M. Reynolds,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88.
- [20] K. Rigby and P. Slee,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 School Children, Involvement in Bully-Victim Problem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Suicide Life-Threatening Behavior*, Vol.29, pp.119-130, 1999.
- [21] M. F. van der Wal, C. A. de Wit, and R. A. Hirasing, “Psychosocial Health among Young Victims and Offenders of Direct and Indirect Bullying,” *Pediatrics*, Vol.111, pp.1312-1317, 2003.
- [22] S. Cleary, “Adolescent Victimization and Associated Suicidal and Violent Behaviors,” *Adolescence*, Vol.35, pp.671-682, 2000.
- [23] C. Mills, S. Guerin, F. Lynch, I. Daly, and C. Fitzpatrick,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Behaviour in Irish Adolescents,” *Irish Journal of Psychological Medicine*, Vol.21, pp.112-116, 2004.
- [24] R. Kaltiala-Heino, M. Rimpela, M. Marttunen, A. Rimpela, and P. Rantanen, “Bullying,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Finnish Adolescents: School Survey,” *BMJ: British Medical Journal*, Vol.319, pp.348-351, 1999.
- [25] E. Roland, “Bullying,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Thoughts,” *Educational Research*, Vol.44, pp.55-67, 2002.
- [26] Y. S. Kim, Y. J. Koh, and B. Leventhal, “School Bullying and Suicidal Risk i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Pediatrics*, Vol.115, pp.357-363, 2005.
- [27] R. Forero, L. McLellan, C. Rissel, and A. Bauman, “Bullying Behavior and Psychosocial Health among School Students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Cross Sectional Survey,” *BMJ: British Medical Journal*, Vol.319, pp.344-348, 1999.
- [28] D. Seals and J. Young, “Bullying and Victimization: Prevalence and Relationship to Gender, Grade Level, Ethnicity, Self-Esteem, and Depression,” *Adolescence*, Vol.38, pp.735-747, 2003.
- [29] J. H. Phillips, J. Corcoran, and C. Grossman, “Implementing a Cognitive - Behavioral Curriculum for Adolescents with Depression in the School Setting,” *Children Schools*, Vol.25, No.3, pp.147-158, 2003.
- [30] 고성은, 홍혜영, “중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연구, 제16권, 제11호, pp.97-124, 2009.
- [31] 김현순,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 pp.203-225, 2009.
- [32]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제44권, 제2호, pp.121-154, 2010.

[33] 김지수,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261-268, 2012.

저 자 소 개

김 경 미(Kyungmi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학사)
- 1993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석사)
- 2004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관심분야> : 정보·인터넷, 시민참여, 여성 및 청소년

염 유 식(Yoosik Youm)

정회원



- 1987년 8월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 1990년 8월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석사)
- 2000년 8월 : 미국 시카고대학 사회학과(박사)

▪ 2005년 8월 : 미국 시카고대학 사회학과 조교수

▪ 2005년 9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관심분야> : 의료사회, 네트워크, 노인 및 청소년

박 연 민(Younmin Park)

정회원



- 1998년 2월 : 외국어대학교 서양학대학(학사)
- 2001년 2월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석사)
- 2006년 12월 : 호주국립대 크로포드스쿨(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연구교수

<관심분야> : 정보 활용 및 격차, 시민참여, 청소년